

카카오 평균연봉 1억7400만원

스톡옵션 포함 금액...한·일 통틀어 최고

한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기업이 카카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 당시 상여금과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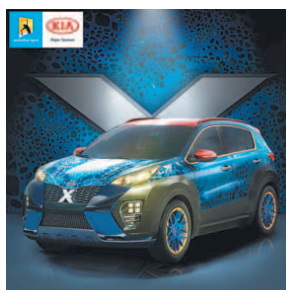
2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급여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기업 급여는 일본의 결산기 일인 3월말 기준 환율(920.26원)을 적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연봉은 1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일본 1위 키엔스보다 2200만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평균 근속연수의 경우 혼다가 23.5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는 한국 1위 기아차, 한국전력보다 4.8년이나 긴 수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일본의 60%를 밑도는 데 비해 급여는 80%를 웃돌아 근속연수 대비 급여 수준이 일본보다 4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근속연수는 9.2년으로 일본의 15.8년보다 6.6년 짧았고 급여는 한국이 6680만원, 일본이 8170만원으로 149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부품) 등은 일본보다 근속연수가 2~5년 짧았지만 급여는 오히려 더 많았다. 일본과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IT·전기·전자도 급여가 일본보다 다소 적긴 했지만 일본 직원의 근속연수가 한국보다 7년이나 긴 점을 감안하면 근속연수 대비 급여 수준은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은행, 증권, 건설(건설자재) 등 3개 업종은 근속연수를 감안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일본보다 낮았다.

김병근 기자

KIA 엑스카 SUV '미스틱' 공개

20세기 폭스사와 합작...엑스맨 테마 적용



기아차가 이십세기 폭스사와 합작해 제작한 기아 엑스카(Kia X-Car·사진)의 '미스틱' 모델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기아차는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개봉에 맞춰 이십세기폭스사와 공동 제작한 기아 엑스카를 '2016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기아차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이 참석한 가운데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미스틱 모델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기아차의 대표 SUV 모델인 기아 스포티지 모델에 엑스맨 테마를 적용했다. 미스틱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적절히 조화되어 날렵한 느낌을 살린 레이싱 차량용 휠과 타이어를 장착해 캐릭터를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The SUV, 스포티지'는 혁신적 스타일의 강인하고 세련된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넉넉하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 차급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주행성능, 향상된 연비와 정숙한 운전환경, 동급 최고수준의 안전성, 첨단 편의사양 등을 갖추고 있다. 내년 초 본격 출시된다.

원성열 기자

권영수 LGU+ 부회장 현장경영 시동

고객 반응 살피는 등 취임 후 첫 외부활동



취임 4주차를 맞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현장경영(사진)에 시동을 걸었다.

LG유플러스는 권 부회장이 22일 서울, 23일 경기지역의 직영점과 고객센터 등 일선 영업현장을 차례로 찾았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취임 뒤 첫 공식 외부활동이다. 권 부회장은 그동안 본부별 업무보고 및 임원인사 등 현황파악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직급별 간담회도 개최했다.

권 부회장은 22일 서초직영점과 논현동 서울고객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매장환경, 서비스와 상품 등에 대한 고객 반응을 살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남들이 깜짝 놀랄만한 차별화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답은 현장과 고객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고객 조사와 강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일단 결정하면 무서울 정도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또 직영점 및 고객센터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열정'과 '전문성', '팀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중 으뜸은 열정이다"며 "각자가 맡은 업무에서 최고가 돼야 회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엔제리너스 서비스 팡...스타벅스는 너무 비싸

소비자원, 커피전문점 만족도 조사

엔제리너스, 직원 서비스 등 종합 만족도 꼴찌
스타벅스, 만족도 1위불구 가격적정성 최하위
이디야, 매장 접근성·가격적정성·메뉴 최고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한집 걸러 한집이 커피 파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편으로 단순 기호식품이 아니라 문화소비 형태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지만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생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소비자의 판단이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합리적인 소비일까.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연매출 기준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가격·영양성분 표시 함량 등을 조사했다. 커피전문

	커피전문점 서비스 만족도								※ 자료: 한국소비자원	
	종합 만족도	직원 서비스	서비스 체형	맛 /메뉴	매장이용 편리성	매장 접근성	가격 적정성	부가 혜택	메뉴 정보	
스타벅스코리아	3.78	3.72	3.69	3.64	3.49	3.85	2.61	3.19	3.32	
이디야커피	3.72	3.62	3.64	3.35	3.54	3.90	3.63	3.31	3.82	
커피빈	3.71	3.64	3.66	3.53	3.55	3.77	2.86	3.10	3.61	
할리스커피	3.70	3.61	3.65	3.55	3.65	3.76	2.93	3.34	3.73	
카페베네	3.66	3.59	3.62	3.48	3.55	3.75	2.80	3.11	3.65	
탐앤탐스	3.63	3.56	3.57	3.52	3.53	3.77	2.81	3.01	3.66	
엔제리너스	3.58	3.53	3.55	3.38	3.52	3.81	2.73	3.06	3.62	
평균	3.68	3.61	3.63	3.49	3.55	3.80	2.91	3.16	3.63	

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우선 7개 업체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6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가격적정성과 맛, 메뉴 등 8개 항목을 평

가한 점수다. 업체별로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디야커피(3.72점), 커피빈(3.71점), 할리스커피(3.70점), 카페베네(3.66점), 탐앤탐스(3.63점)가 뒤를 이었다. 꼴찌는 엔제리너스

(3.58점)였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커피값(가격적정성)에서는 1잔당 최고와 최저 가격차가 1.7배나 났다. '카라멜마카아토'를 커피빈에서는 5900원, 이디야커피에서는 3500원에 마실 수 있다. 가격 적정성에서는 이디야(3.63점)를 뺀 나머지 6개 브랜드가 모두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할리스커피(2.93점), 커피빈(2.86점) 순이다. 스타벅스가 2.61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적정성 평균 점수는 2.91점으로, 8개 평가항목 가운데 평균이 유일하게 2점대다. 이는 소비자들이 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여긴다는 의미다.

한편 매장의 열량·당류·카페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커피,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 3.1%p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 모바일게임들이 의상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풍성한 혜택도 마련했다. (맨 왼쪽부터)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벌이는 넥슨의 '슈퍼판타지워'와 넷마블게임즈·컴투스의 모바일게임.



국내 게임사들, 크리스마스 선물 쏜다

이메아, 화이트크리스마스팬 사파이어 지급
넥슨·컴투스·게임빌 등 X-mas 아이템 보상

크리스마스엔 게임 세계도 축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바일게임 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게이머들은 게임 내에서 의상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아이템 등 풍성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넷마블·넥슨 풍성한 즐길거리 마련

넷마블게임즈는 인기 모바일게임에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이메아'는 25일에 눈이 내리면 23~25일 접속한 이용자 전원에게 사파이어 250개를 지급한다.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같은 기간 접속한 이용자에게 A~S급의 날개를 준다. 이메아는 또 30일까지 실시간 레이드를 파티 플레

이로 5회 클리어한 이용자에게 한정판 크리스마스 코스튬을 제공한다. '메이븐'은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특별 던전을 운영한다. 모든 이용자가 입장할 수 있으며 산타, 요정 등의 의상을 입은 몬스터가 출현한다. 또 무기, 방어구, 재화 등이 담긴 보상 콘텐츠 '산타의 선물상자'를 마련했다.

넥슨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히트'는 24일 유저들이 가장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모험포인트 200개', '젤 300개' 등 4종 아이템을 인기투표를 통해 지급한다. 27일까지 공식 카페에 크리스마스 배경의 팬아트를 올리는 유저들 중 주점을 통해 보상을 제공한다. '슈퍼판타지워'는 27일까지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 '크리스마스 코스튬' 2종과 특별한 장비 캡슐, '에너지' 등을 증

정한다. 또 1월4일까지 '데보라', '캐럿', '잭', '릴리' 등 4종 캐릭터 '크리스마스 코스튬'을 기간 한정 판매한다.

●게임빌·컴투스도 대규모 이벤트

컴투스는 12종의 모바일게임에서 이벤트를 실시한다. '낙시의 신'은 30일까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만나볼 수 있는 '산타클로스 피쉬'와 '루돌프 순록'을 낚으면 높은 데미지와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X-mas 장비', '산타클로스 장비' 등의 아이템을 지급한다. 또 선물 응모권을 모으면 산타클로스 낚시대, 고급 장비 초기화 티켓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울시커'에선 12월 말일까지 노멀, 하드, 헬 3가지 난이도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이벤트 던전을

운영한다. 각각의 던전을 클리어하면 황금종을 얻을 수 있고, 황금종을 모으면 크리스마스 한정 영웅과 골드, 다이아, 루비 등의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게임빌도 총 9종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피싱마스터'의 경우 28일까지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이벤트를 열어 낚시터에서 획득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을 모두 모으면 보상을 지급한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추가된 '전설의 어중'도 등장한다.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은 29일까지 게임 내 드롭 아이템인 '크리스마스 눈결정사탕', '눈사탕 마시멜로'를 크리스마스 아바타로 교환해 준다. 24일과 25일에는 접속시 '초월 부츠'도 증정한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기아차 7개 차종, 美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아이오닉·아반떼·쏘렌토·투싼 등 선정
산타크루즈는 역동적 디자인 인정 받아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 '아반떼' '투싼' '쏘렌토' 'K5' 콘셉트카 '산타크루즈(HCD-15)' '트레일스터' 등 7개 차종이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상인 '201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으로 전자, 운송, 가구, 컴퓨터 등 포춘 500대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각 부문별 수상작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품된 총 900여 점이 분야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현대·기아차 7개 차종이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현대차 아반떼는 정돈된 기조 조형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역동성으로, 투싼은 SUV만의 대담한 이



미지와 모던하고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로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플랫폼을 처음 적용해 내년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출시도 되기 전에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기대감을 높였다. 기아차 K5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면 처리로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점이, 쏘렌토는 시원하고 강렬한 전면부와 풍부한 볼륨감

이 돋보이는 측면부로 어우러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

올해 시카고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였던 현대차 콘셉트카 산타크루즈는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로 대형 해사고날 라디에이터 그릴이 돋보이는 역동적인 디자인이, 쏘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아차 콘셉트카 트레일스터는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 '초프리미엄' 가전 뜬다

내달 6일 통합 브랜드 'LG 시그니처' 공개

LG전자가 초(超)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을 위한 통합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LG 시그니처는 본질에 집중한 최고 성능과 정제된 아름다움, 혁신적 사용성을 지향하는 통합 브랜드다. LG전자가 여러 가전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가전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면서 LG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에서 LG 시그니처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북미, 유럽, 한국 등 주요 프리미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올레트(TV와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선별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 한편 LG 시그니처는 디자인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발족된 디자인위원회를 통해 탄생했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기획한 제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들이 전폭 지원하고 있다.